中산동 불교유물 대량발굴

불상등 2백여점…북위~북송대 추정 용흥사지서

중국 북위(北魏)시대부터 12세기 북송(北宋)시대에 이르는 약 5백여년 간의 불교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문물보(中國文物報)〉 최근호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山東省) 청주시(靑州市)박물관 발굴조사팀은 지난해 10월 박물관 인근 건축현장 지하에서 불상, 보살상, 나한상 등 총 2백여점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불상이 출토된 장소는 5세기경 북위시대에 창건돼 13세기 원(元)말 명(明)초기에 소멸된 용흥사지(龍興寺址)로 추정된다고 발굴팀은 전했다.

발굴조사팀 관계자는 "발굴된 출토품은 석회석, 한백옥(漢白玉), 화강암, 철(鐵), 진흙, 나무, 도자(陶磁) 등 7종의 다양한 재질로 제작됐다"며 "발굴유물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석상은 그 조각술이 매우 뛰어나, 북위시대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는 돈황(敦煌), 운강(雲崗), 용문(龍門), 공현(鞏縣) 등의 조상(造象)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출토품들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일부 불상은 채색에서 불교의 고사(故事)가 그려져 있거나 부처님, 보살, 비천(飛天), 공양인(供養人), 화염문(火焰紋) 등이 묘사돼 있다.

특히 유럽풍을 느낄 수 있는 기법의 몇몇 작품들은 실크로드를 통한 활발한 동서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불교사 및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불교

미얀마 종교분쟁

회교도 불자소녀 성폭행 발단

미얀마 북부 만달레이市에서 발생한 회교도의 불자 소녀 겁탈 사건이 종교분쟁으로 번져 당국이 만달레이를 포함한 다섯 개 시에 1급 경계경보를 내리는 등 미얀마의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승단을 비롯 불자들이 회교 사원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집압과정에서 스님들을 체포했다. 이중 15명은 즉결재판에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고 투옥됐다.

미얀마의 반체제 승려단체인 '미얀마 청년 승려연합'은 "군사정권이 이번 사건을 승려탄압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미얀마 정부의 무력진압을 비난했다.

미얀마 당국은 만달레이 지역에 통금을 실시하고 5명이상의 집회를 금지시키는 한편 일부 거리에서 주민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BBS 경리사고' 어떻게 돼가나

8억횡령 추가확인 종회사회분과위

어음할인후 지국 송금처리 위장 수법 밝혀

경영진 문책유보…노조 재단불신 서명운동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여연)는 불교방송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과 관련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불교방송 96년도 재무조사 결과 받을 어음 8억4천만원 횡령이 추가발견 됐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서 조차 지적되지 않은 이 돈은 사장과 상무의 승인절차를 거쳐 받을어음을 할인, 대구지국에 송금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 횡령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금향방 규명이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기밀비 부분에서도 기밀비 집행에 대한 정당한 승인이 없이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나, 기밀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재검토 결과 모두 상무와 사장이 결재했다는 것.

종회사회분과위는 또 불교방송 前 경리직원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96년 8월부터 연말까지 당일 입금액이 당일 출금된 6억원 규모의 내역에 대해 돈세탁의 흔적으로 추정된다면서 직원봉급이 방송국이 아닌 모처에서 前 경리직원 개인통장으로 지급일 하루 전 한 번에 입금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종하스님과 조해형사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선수습 후재고'의 원칙하에 사표를 반려했다. 따라서 이번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최고경영진의 문책은 사실상 보류됐다.

또한 지난 2월 중순부터 재단이사회 차원에서 재감사 작업을 벌여왔던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가 이날 이사회에서 '불교방송 경리사고 조사결과 종합보고서'를 통해 사건조사경과를 보고했으나, 정작 중요한 96년 공금횡령 및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대책위 조사에서 보고된 이상의 조사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미흡했다는 여론이다.

특히 94, 95년도 가수금 지출내역등만 부각시켜 가수금과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그대로 남겼다.

한편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선상신)는 이사회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20일 오후부터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전노조원을 대상으로 재단불신임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민족불교중흥회는 지난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불교개혁과 통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개혁·통일 지향 '한불회' 20일 창립

공동 대표에 혜창·범하·지명스님

한민족불교중흥회(약칭 한불회)는 지난 20일 조계사대웅전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포교원장 성타스님,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함종한 박상규 박철언의원 등 3당 불자회장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공동대표에 혜창(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범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지명스님(청계사 주지)을 추대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혜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대중의 정서에 맞는 불교개혁운동에서부터 통일국가 정토사회를 구현하는 건강한 시민운동 차원까지 지향하겠다"고 밝히고 △창조적인 불자상 정립 △통일한국의 불교적 대안 모색 △민족문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 △건강한 불교공동체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한불회는 지난해 6월 상원사 주지 정념스님(한불회 집행위원장) 등의 제안에 의해 모임이 추진되었으며,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인권사회 남북교류 등 15개 위원회와 17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으며, 석주 숭산스님이 증명,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과 성타스님, 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 등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선암사 주지자격싸고 마찰

자금유용 화근…17일 정화위·주지측 대치

순천 선암사(주지 지허)가 또다시 몸살을 앓고있다.

지난 13일 경내인 설선당에서 20여명의 스님들이 현 주지에 반대하는 선암사정화대책추진위(위원장 금암스님. 순천 향림사주지) 발대식을 갖고 △지난 산중총회의 주지선거 오류 △주지가 대중공양에 3달간 불참석 △금둔사불사에 선암사 자금유용 등을 내세워 주지자격 정지를 요구했다.

이어 17일에는 1백50여명의 경찰력이 투입되고 선암사 현주지측과 정화추진위측이 3시간여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조계종측 주지인 세민스님도 승가대 해인사스님 40여명과 선암사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조계종 호법부(부장 혜창스님)는 지난 17일 "종단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며 "선암사 일부스님의 요청에 의하여 세민스님이 개입한 것이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무위)은 "조계종 총무원장은 해묵은 소유권 분쟁을 일시에 타결 할 수 있도록 소유권 포기를 선언하라"며 선암사가 태고종의 정신적인 귀의처가 되도록 승가본연의 자세회복을 촉구했다.

한편 선암사주지 지허스님은 21일 개최된 산중총회〈차주상보〉를 앞두고 자진사표를 제출했다.

원융종 종정 일공스님 총무원장에 보인스님

◇일공 스님

원융종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캐피탈호텔에서 '창종 16주년 기념법회 및 일공스님 종정 추대식'을 거행한다.

이날 법회에서 현 4대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일공스님〈사진〉은 제3세 종정에 추대되며, 송보인스님이 제5대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목탁소리

중앙신도회 옥동자인가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산고끝에 조계종중앙신도회가 창립됐다.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옥동자인가 미숙아인가.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회장으로 선출된 송재건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질을 인정하고 있다. 신심깊고 재력도 갖추었고 정치지향성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높이 사는 듯하다.

그러나 중앙신도회는 회장 1인에 의해 움직여지는 단체가 아니다. 재가 2부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24개 교구신도회를 구성했지만 중앙신도회 창립을 앞두고 서두른 탓에 결속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말사신도회 구성율도 50%에 머물고 있다.

종단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도 과제이다. 신도단체이므로 당연히 승단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앙신도회 회칙보다 상위법령인 '중앙신도회 설립·운영에 관한 령'에서는 신도회 임원임명의 승인권과 승인취소권을 총무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정요구권, 감사의 권한도 총무원장에게 있다. 창립법회에서 행한 월주스님의 법어와 혜창스님의 인사말에서도 '당부'만 쏟아졌을 뿐 종단 구성원으로서의 신도들의 활동공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개별 신행단체들의 참여가 전무한 가운데 이들 단체들이 중앙신도회 참여를 망설이는 주요한 원인이다.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굳이 종단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다. 마냥 옥동자일 수만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도회를 언제까지고 '품안의 자식'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중앙신도회를 신도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제2의 종무기관'이라고 혹평하는 여론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마이산 탑사 대웅전 보존 마땅"

국민고충처리위 진안군에 철거 철회 시정령

"마이산 탑사는 사찰이 아니므로 대웅전 산신각등을 철거하라"며 온갖 행정의 횡포를 자행하던 행정기관장이 철퇴를 맞았다.

〈본지 104·105호 14면 참조〉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7일 "진안군(군수 임수진)은 마이산 탑사(주지 왕선스님) 대웅전 산신각 철거지시와 문화재관람료 예치액 사용 미결재부분을 시정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30일 이내에 권고처리결과를 국민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의 의결에 따라 진안군의 지난해 7월 16일 마이산 탑사 대웅전 산신각 철거 계고처분이 철회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5월 17일 마이산 탑사가 경내정화사업을 위해서 신청한 문화재 공개관람료 예치액 사용신청이 승인되고, 탑사가 사용하고 있는 군유임야 3백여평에 대해서는 관람료 수익금 50-30% 배분은 부당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 의결에 따라 토지 사용료만 진안군에 납부하게됐다.

한편 진안군과 행정소송·심판이 맞물려 진행중인 진안군의 마이산 탑사는 이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후 유리한 판결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불자들과 지역주민들은 군행정당국의 마이산 탑사 철거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4천여명이 연명했다.

방송가 소식

'경제를 살립시다' 특집

BBS '전정봉의 열린경제'(PD 한지윤)가 특집방송 '경제를 살립시다'를 기획해 위기에 봉착한 경제 불황 타개책으로 생활 속의 경제살리기 운동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동안 과소비·투기추방 재활용 절약 가정경제 살리기 등으로 진행될 이번 특집방송은 불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와 현대인의 경제생활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살리기운동에 대한 총평과 선진국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의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불교TV 모니터 모집

불교TV는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송모니터 요원 1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 10일~24일까지며 학력은 대졸이상.

관심있는 분은 이력서1통과 사진1매를 구비하여 불교TV 기획실로 접수하면 된다.

불교TV는 모니터요원에게 CATV가입비와 월 시청료등을 지원한다. (02)3270-3336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 정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 공덕,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 1·2
연등공양 발원문/어린이 봉축 발원문
봉축시 1·2/팔상예문(八相禮文)

제2부 이야기 하나
흰 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새벽 별…큰 깨침
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이야기 둘
부처님오신날 등을 켠다
만개의 등, 하나의 등
온 거레의 잔칫날, 사월 초파일/등 공양의 유래
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
관불 의식의 유래

제3부 봉축법문
봉축법어 1-무우수꽃 피는 룸비니동산
봉축법어 2-하얀연꽃 피어나라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 온라인 번호 ◈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연등공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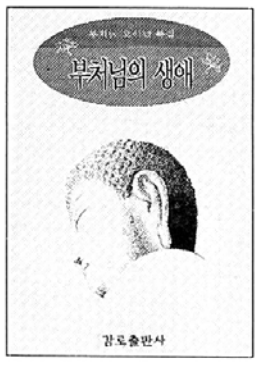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신국판 64페이지 ■정가/1,500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봉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크기/신국판 72페이지 ■정가/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